



이슬기의 China Report - 내공이 차이나 물류 이야기①

## 중국내 개발구(開發區)만 2000개 공장정문 경비원만 봐도 '기업등급' 이 보인다

글. 이슬기 | A.C.E Express 전무



중국에는 참 개발구도 많고 특수구역도 많다. 심지어 중국인들에게도 생소한 개발구가 한둘이 아니다. 국제관광개발

구, 고급산업기술개발구, 연해경제개발구, 변경경제합작구... 독자들은 이런 개발구나 특수구역을 얼마나 알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중국 개방 초기 한국 기업이 진출한 지역은 개발구가 참 많았다. 이 때문에 중국 내 활동 중인 물류 기업 직원이라면 매일 출근하다시피 개발구를 헤집고 다녀야 밥벌이를 할 수 있었다.

개발구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까? 아마도 중국에서 근무해 본 사람이나 종종 중국 출장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상당히 넓게 구획된 지역에 종종 들어선 공장들을 떠올릴 것이다.

아직 도시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다소 엉성하고 행한 개발구가 있는가 하면 잘 짜여진 계획도시의 형태를 지닌 신도시 같은 개발구도 있다. 아침이면 몇원으로 끼니를 해결 할 수 있는 콩물

과 튀김빵을 파는 즉석 음식점이 즐비하고 저녁이면 갈색 컷수염을 기른 위구르인들의 양꼬치 노점이 황량한 개발구에 활력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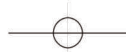
어느 개발구나 사실상의 주인은 일자리를 찾아 들어온 외지인들이다. 개방정책에 따른 급속한 경제발전의 주역이 이들 농민공(農民工, 설명)을 포함한 외지인들이며 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이 개발구이다. 우리가 흔히 접하고 이야기 하는 개발구는 경제기술개발구로서 1984년 중국정부가 국내의 투자를 끌어 들이기 위해 세제감면 등 특별혜택을 주면서 설치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수출입국의 기치 아래 마산과 이리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했듯이 중국도 개방초기 외자유치를 위해 국가 단위 또는 성급 또는 성급이하 각급 지방행정단위별로 경제개발구를 경쟁적으로 유치했다.

이렇게 태동한 개발구는 초기의 공업구로서의 기능을 뛰어 넘어 점차 종합적인 현대적인 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됐다. 특히,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더불어 개발붐의 촉매제가 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개발구는 부지확보나 수출

입 물류의 접근성 편이를 위해 연해 지역에 위치했고 자연스럽게 중심도시와는 다소 거리를 두게 됐다. 이런 점이 한편으로는 개발구의 독립된 도시기능을 가속화하여 주거기능은 물론 금융, 무역, 교육, 상업, 오락 기능을 갖춘 신흥 도시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한때 개발구는 남성들의 일탈을 부추기도 했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흥풍가가 형성됐다. 가까운 대도시에 비해 땅값이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빠른 속도로 유흥문화시설이 확산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주머니가 두둑해진 중국인, 중국으로 파견 나온 주재원, 거기에 도시에 일자리를 찾아 왔다가 편한 돈벌이에 맛들인 여성들이 융합반응을 일으켜 작지 않은 사회 문제가 야기되곤 했다. 직원이 개발구 술집에서 폭행사건에 휘말렸다는니, 모 주재원이 술집아가씨에 빠져 개발구로 출근을 한다나, 누구는 마작에 빠져 회사공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잡다한 소문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꼬리를 물었다.

1993년에 이르러서는 중국전역에 2300여개의 개발구가 난립했고 개발붐



에 편승한 경기과열 우려에 중앙정부가 대대적으로 정리에 나섰다. 따지고 보면 2000년대 초중반 중국을 휩쓸고 지나간 부동산 광풍의 씨앗이 바로 개발구에서부터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중국전역에는 수많은 개발구가 있고 전 세계로 부터 온 수많은 기업들이 365일 24시간 불을 밝히고 있다. 그 많은 기업 가운데에는 우리 한국기업들도 당당히 자리를 잡고 개발구 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비록 파스콘(Foxconn International Holdings Ltd, 설명) 같이 거대한 기업은 아니지만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곳곳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같은 개발구 내에 있어도 기업의 규모나 소속국의 위상에 따라 보이지 않는 등급이 있고 상대적으로 약소국의 기업이나 소규모의 기업은 직원채용에서 부터 수출입통관, 세제혜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별을 받게 된다. 등급을 매겨 공장 담벼락에 붙여 놓진 않지만 엄연히 등급은 존재하는 것이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본기업이나 미국계, 유럽 3개국(프랑스, 영국, 독일) 기업은 1등급이다. 건물만 봐도 벌써 규모가 다르고 돈 들여 지은 태가 난다. 깨끗하고 반듯하고 보안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직원들 복장도 단정하고 출입증 목줄조차 두툼하고 화려한 것이 목에 힘주고 다닐 만하다. 이런 1급 회사 경비초소에는 항상 입사원서를 들고 줄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즐비하다.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만큼이나 공장도 급성장하다 보니 상시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

덩달아 정문 경비초소 경비원의 파워도 막강하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들



이 공안원이 아닐까 착각할 정도다. 단정한 두발에 품 나는 정복의 보안원이다. 구두도 반짝거리고 진짜 총은 아니지만 고급스러운 가죽 케이스에 두툼히 들어있는 가스총이 제법 위엄을 더한다. 역시 1등급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는 물론 빼 속까지 다르다.

그 다음으로 꼽히는 게 한국 대기업이나 유럽 주변국가 기업들이다. 1등급과 비슷하게 보이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딱 보면 2등급이다. 일단 공장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고 외관도 2% 부족하다. 종업원들 복장도 나름 깨끗하긴 하지만 원단이 다르다. 얇은 단색 목줄의 출입증은 비닐커버로 이른바 '싼티'가 난다. 경비원도 급이 떨어진다. 비용이 다소 저렴한 용역회사와 거래하다 보

니 어쩔 수 없다. 그래도 2등급 정도면 갖출 건 다 갖췄다.

3등급은 대부분 한국계 기업 아니면 대만 기업 또는 조금 잘나가는 중국계 기업이다. 일단 건물에 일관성이 없다. 크고 작은 건물이 붙어 있거나 일관성 없이 배치되어 있다. 종업원들 복장은 50%만 정복이다. 상의는 유니폼이지만 하의는 자유 복장이다. 위아래로 한 벌씩 유니폼을 나눠줄 형편이 못된다. 목줄 출입증 보다는 명찰이 대세이다. 명찰은 목줄 출입증 가격의 십분의 일 수준이다. 경비원은 용역 회사가 아니라 직원인 경우가 많고 연령대가 다소 높아진다. 그나마 3등급도 갖출 건 대충 갖추고 있다.

4등급은 차원이 달라진다. 정문 경비